

# 황토현 전적 전봉준 장군 동상 재건립 본격 추진

정읍시, 동상 건립추진위 열어... "동학농민군 시대정신 보여주는 새로운 작품으로 교체해야"

정읍시 덕천면 황토현 전적에 세워진 동학농민혁명 지도자 전봉준 장군의 동상 철거와 재건립 추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시에 따르면, 1987년 군사정권 시절 제작된 전봉준 장군 동상은 친일 인명사전에 등재된 조각가가 제작해 그동안 철거 논란이 있어왔던 작품이다. 특히, 친일 작가가 만든 조각상으로 인해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하며 나라를 지키기 위해 힘썼던 동학농민혁명의 의미가 퇴색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다. 이에 따라, 시는 2021년도 예산 12억원을 확보해 기존 전봉준 장군의 동상을 철거하고 새로운 방식의 기념물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시는 19일 전봉준 장군의 새로운 세상에 대한 간절한 염원과 위풍당당한 장군의 위업을 담은 작품으로 교체하기 위해 '전봉준 장군 동상 건립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추진위원회는 유진섭 시장을 비롯해 동학농민혁명 연구자 시의회 의원, 건축·조경·미술·조각 분야 전문가, 동학 관련 단체 등

20여 명이 참여했다. 주요 회의 내용으로는 ▲전봉준 장군 동상과 부조를 철거 후 향후 처리방안 ▲새 동상의 건립 위치 및 주변 경관 조성 ▲새 동상 건립 관련 제반 사항 ▲국민 성금 모집 방법 등이다. 위원들은 전봉준 장군 동상과 부조를 자유롭게 평등한 사회와 자주적인 국가 보장이 중심인 동학농민군의 시대정신을 보여주는 새로운 작품으로 교체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황토현 전승지를 역사성과 예술성이 갖춰진 국민 교육의 현장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21세기 민족문화 정립의 방향을 제시하는 의견에 대해 전체적으로 동의했다. 유진섭 시장은 "정읍시는 동학농민혁명 정신 선양에 어긋나는 기념사업에 대해 앞으로 철저한 역사적 고증을 통해 바로잡아 나갈 것"이라며 "동상 재건립 추진으로 동학농민혁명과 함께 전봉준 장군이 정읍을 대표하는 역사 인물로 기억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덕천면 황토현 전적에 세워진 전봉준 장군 동상.

## 대학과 지역을 '잇-다'

군산대 박물관, '지역 속으로 한 걸음 더...' 프로젝트 일환... 교내 황룡문화관서 개관

군산대학교 박물관은 국립대학 육성사업 '지역 속으로 한 걸음 더 박물관 만들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박물관 갤러리 '잇-다'를 교내 황룡문화관 2층에 개관했다. 박물관 갤러리 '잇-다'는 군산대학교의 슬로건인 '사람으로 세상을 잇다'에서 모티브를 얻어 문화와 예술로 사람과 사람, 대학과 지역을 잇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박물관 갤러리 '잇-다' 개관을 통해 군산대학교 황룡문화관은 박물관 상설전시실, 군산의 기억실, 학교 역사실 등 군산의 역사와 문화에서 예술까지 아우르는 4개의 전시공간을 갖추고,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되었다. 박물관 갤러리 '잇-다'는 대학 구성원과 지역사회의 전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열린 문화공간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면적

230㎡, 천정 높이 3.4m로 무빙월을 갖추고 있어, 다양한 전시 연출이 가능하다. 현재 갤러리에서는 기획 전시회 "군산대학교 사진공모전 수상작과 함께 합니다"가 열리고 있다. 전시 기간은 2월 20일까지이고,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역대 수상작 및 올해 수상작 32점을 전시 중이다. 군산대학교에서는 매년 '지역과 함께 하는 사진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제8회 공모전을 개최했다. 군산대학교 박물관은 관람 시간 내 발열 체크 확인 및 안내요원을 배치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을 최우선으로 운영하고 있다. 평일(월~금)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관람이 가능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사전예약제로 진행된다. /군산=남현봉 기자



## 태권도진흥재단, 중·고교 태권도 수업 지원 사업 17개 학교 선정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이상욱)은 19일, '2021년도 중·고등학교 태권도 수업 지원' 사업 참여 학교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중·고등학교 태권도 수업 지원은 태권도 저변 확대와 인성·체력 증진 등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1년도 사업에는 전국 83개 학교가 지원했다. 이 가운데 서울 서울아이티고등학교, 부산 부일외국어고등학교, 대구 영남공업고등학교, 경기 부림중학교, 강원 태백기계공업고등학교, 전북 군산고등학교 등 총 12개 광역자치단체에서 17개 학교가 선정되었다. 이들 학교는 3월부터 학급당 주 1회(총 30차시) 태권도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방역과 거리 두기 지침 등을 고려해 수업 시기 및 방식을 결정할 계획이다. 태권도진흥재단 김용 사업본부장은 "청소년들이 보다 많은 태권도 수련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고교 태권도 수업 지원 사업 확대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노력하고 있다"라며 "청소년들이 이번 태권도 체험을 통해 성인이 되어서도 태권도를 수련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되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선정된 17개교는 태권도진흥재단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 '잠정 휴원 결정' 태권도원, 재개원

체험관은 3월부터 운영  
정부 방역지침 준수 하 운영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이상욱)은 19일부터 태권도원을 재개원 한다. 태권도원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잠정적 휴원을 결정하고 방문객 입장을 제한해왔다. 19일부터는 태권도원 상설 공연을 진행하고 전방대 관람 등도 가능하다. 단, 태권도원 체험관은 AR·VR 시설 공사로 인해 오는 3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태권도진흥재단은 태권도원 재개원에 앞서 전문 업체 등에 의한 방역과 소독을 마쳤다. 이와 함께 19일부터 태권도원 상설공연이 펼쳐지는 T1 공연장은 태권도 공연 직후 내부 전체 소독을 하고 전망대와 박물관, 도약 센터 등 도 일일 단위로 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순환버스는 운행 직후 내부 소독을 한다. 이와 함께 입장객 전원에게 대표소에서 발열 측정을 하고 T1 공연장 등 주요 장소에는 안면인식 열화상 카메라도 배치·운영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정부의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태권도원 운영에 나설 계획이다. 태권도진흥재단 관계자는 "태권도원을 찾는

방문객들께서는 필히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방역지침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며 "따뜻한 옷차림으로 백운산 자락에 위치한 태권도원의 멋진 설경도 겨울 즐길 거리 중 하나이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 국립민속국악원, 판소리마당 '소리 판' 출연자 24명 공모

국립민속국악원(원장 왕기석)은 3월부터 7월(6월 제외) 매주 토요일 오후 3시에 진행되는 판소리마당 '소리 판' 무대의 소리꾼 24명을 모집한다. 신청자격은 판소리 5바탕(춘향가, 심청가, 흥부가, 수궁가, 적벽가) 중 한바탕을 부를 수 있는 자로, 폼나무 무대는 초등학교 8명, 중·고등학교 6명, 완창 무대는 만 19세 이상 소리꾼 10명이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민속국악원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접수는 2월 1일부터 2월 3일까지 3일간 이메일로 진행하고, 선정된 자에게는 무대운영을 비롯해 부문별 소리꾼과 고수의 출연료 등을 지원한다. /남원=김기두 기자

## 전북문화관광재단, JB문화통신원 모집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기전)이 'JB문화통신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JB문화통신원'은 도내 14개 시·군의 문화·예술·관광에 관한 현안 소식과 정보 제공, 지역의 숨은 문화와 예술인에 대한 콘텐츠 발굴 및 재조명 등 전라북도 전반의 소식과 재단의 사업을 알리는 홍보요원이다. 재단에 따르면 2월 3일까지 홈페이지(www.jbct.or.kr)를 통해 글(일반)통신원은 14개 시·군 현직인 각 1명, 영상통신원은 도내 4명 등 총 18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지원 자격은 문화·예술·관광에 대한 이해도와 관심이 높고 지원동기가 적합한 자로서, 글(일반)통신원은 14개 시·군 해당 지역 거주자를 우선 선정하고, 영상통신원은 전라북도 거주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주요 활동은 월 1회 이상 도내 문화예술 현

장 취재(사진 촬영 포함) 후 글쓰기 또는 영상 제작, 온·오프라인 간담회 참석 등이다. 선발된 'JB문화통신원'에게는 위촉장 수여, 소정의 활동비 지급, 역량 강화 워크숍 등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기존의 글(일반)통신원에서 영상통신원으로 확대 운영한다. 영상통신원은 카메라와 핸드폰으로 촬영·편집 등을 활용해 취재한 후 재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라북도 곳곳을 소개할 예정이다. 활동 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다. 지원서는 재단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제출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jbctpr1@naver.com)로 접수하면 된다. 한편, 'JB문화통신원'은 매일 말일 발행하는 온라인 소식지 '마중뉴스데일'을 통해 만날 수 있다. /장문성 기자

#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자료: 질병관리청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일반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